

“최첨단 센서·AI 기술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할 것”

차기작엔 영양·심혈관 측정 등 추가 갤럭시 헬스 기술력 한층 더 고도화 워치 시리즈, AGEs 지표측정 기능 링과 함께 착용 시 24시간 모니터링 스마트디바이스 연결 인사이트 연구

“최첨단 센서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에 기반한 최신 갤럭시 웨어러블 포트폴리오를 통해 더욱 종합적인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박현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 팀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워치7,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에 담긴 삼성 헬스 비전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현수 팀장은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 워치7 시리즈에 수면 무호흡 진단, 최종당화산물(AGEs) 지표 측정 등 새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차기작에는 영양과 심혈관 관련 측정 등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갤럭시 웨어러블인 워치7, 워치 울트라, 링 등 신제품을 소개하며 갤럭시 헬스 기술력이 한층 더 고도화됐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 마련된 체험공간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살펴보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는 ▲수면 무호흡 진단 ▲불규칙 심장박동 알림 ▲최종당화산물 지표 ▲여성 생리주기 예측 ▲100가지 이상 운동 측정 기능 등이 탑재됐다.

링은 수면 분석에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심박수 알림, 자동운동 감지, 알림 제어 및 사진촬영 기능, 여성 건강 지표 측정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혈당 측정 기능

은 규제와 측정 정확도 등으로 인해 탑재되지 못했다.

◆ 갤럭시 워치7, 노화방지 기능 ‘최종당화산물지표’ 탑재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새로운 기능 가운데 이목을 끄는 것은 ‘최종당화산물 지표’ 측정 기능이다. 최종당화산물 지표는 지난 2~3개월간 혈당 평균치를 평가하는 당화혈색소(HgA1C)와 상관 관계를 갖는 지표다. 이에 사용자의 혈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 ‘갤럭시 스튜디오’에 갤럭시 링이 전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갤럭시 신제품군 사전판매를 시작했다. /뉴스시스

관, 장기, 관절, 망막 등에 축적된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일상식 식단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삼성전자는 최종당화산물지표 측정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삼성의 료원 관계 병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지표가 사용자에게 식단과 생활 습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건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7 시리즈에 한층 강력해진 최첨단 바이오액티브 센서를 탑재해 더 정확한 측정과 새로운 건강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최신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기존의 적색, 녹색, 지외선 외에 황색, 청색, 자색, 적외선 등 기존에 없던 다양한 LED를 탑재하고 각각의 헬스 데이터에 최적화될 수 있게 LED 센서들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고강도 운동 중 심박수 등의 측정값이 전작 대비 30% 더 정확해지는 등 정확도가 향상됐으며 새로운 색상의 LED 추가로 이전에는 감지하지 못한 건강 지표를 측정할 수 있게 돼 더욱 종합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지

원하게 됐다.

◆ 갤럭시링, 수면케어 중점 ‘24시간 건강관리’

초소형 컴팩트 갤럭시링에도 갤럭시 워치와 동일한 적색·녹색 및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다. 이에 수면, 활동, 수면 중 심박수, 심박 변이도 등 7가지 주요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지표화한 ‘에너지 점수’와 온디바이스 LLM(기기장착형 거대언어모델)을 연동해 사용자의 당일 컨디션을 전송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박 팀장은 “링과 워치7을 함께 착용하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측정 정확도도 높아진다”며 “아울러 태스크 포스가 구성돼 TV나 냉장고,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한 건강관리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두 기기를 함께 착용하면 갤럭시링의 배터리 지속시간이 최대 30%까지 연장돼 더 오랫동안 착용 가능한 장점도 있다. 갤럭시 버즈도 활용하면 사용자가 과도하게 목을 숙이는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면 스트레칭 알림을 보내 가볍게 목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프랑스(파리)=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대한민국 최초 사회보험
산재보험 60th 주년

1964 2024

산재보험 60년의 보람
더 희망찬 내일의 바람

하이브리드 AI·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강조

» 1면 “구글·퀄컴 등과 협력...”서 계속

제니 블랙번 구글 제미나이 UX 부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초창기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호흡 맞춰왔다. 이번 신제품에 탑재된 제미나이 기능 또한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춰 함께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은 삼성전자와 함께 AI 기술과 모바일 AI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점부터 갤럭시S24에 최초로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탑재하기 협력해 왔다”며 “두 회사가 한 마음으로 모바일 AI 기능 탑재 단말기와 진입 시점, 매끄러운 연결 경험 등을 함께 고민한 결과 혁신적인 AI경험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돈 맥과이어 퀄컴 부사장은 갤럭시 AI 경험을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기 위한 단말기 최적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퀄컴은 업계 최고의 프로세싱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파

너사의 소비자 인사이트와 혁신 기술에 대한 협력으로 혁신적인 플랫폼 개발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 김대현 부사장은 “AI는 더 이상 갖고 있으면 단지 좋은 것(Nice-to-Have)가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하이브리드 AI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중시해야 하는 책임감도 강조했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지키면서 갤럭시 AI 기술의 혜택을 더 많은 사용자가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 정부 기관 등과 협력해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기자)